
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종양
 논문제목 활막 육종에 대한 우발적 절제술의 양상과 임상적 결과
 영문제목 **Unplanned excision of synovial sarcomas: common patterns of misdiagnosis and its clinical implications**
 발 표 자 최은석 책임저자 김한수
 저 자 최은석,한일규,조환성*,강현귀**, 김준혁**,이상아, 김한수
 기 관 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,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*,
 국립암센터 정형외과**

서론 : 활막 육종은 성인 연부 육종의 10-15%를 차지하는 악성 종양이나, 성장 속도가 낮고,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양성 종양으로 오인되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. 본 연구에서는 우발적 절제술이 시행되었던 활막 육종 환자들의 임상적, 방사선학적 특징을 분석하였고, 계획적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군과의 임상적 차이를 비교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활막 육종은 성인 연부 육종의 10-15%를 차지하는 악성 종양이나, 성장 속도가 낮고,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양성 종양으로 오인되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. 본 연구에서는 우발적 절제술이 시행되었던 활막 육종 환자들의 임상적, 방사선학적 특징을 분석하였고, 계획적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군과의 임상적 차이를 비교하였다.

결과 : 종양의 크기는 우발적 수술에서 평균 5.2 (± 3.5) cm로 계획적 수술의 9.1 (± 3.5) cm보다 작았다($p=0.001$). 수술 전에 MRI 검사는 계획적 수술에서는 46명 (88%), 우발적 수술에서는 27명 (71%)이 시행하였다. 수술전 MRI소견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는데, 하지에서는 낭종이나 혈관종 (11/17, 65%)으로, 상지에서는 신경원성 종양 (5/9, 59%)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다. 상지에 발생한 경우 하지보다 우발적 절제의 빈도가 높았으며 (65% vs 37%, $p=0.037$), 표재성 병변이 근막하 병변보다 높은 빈도 (75% vs 39%, $p=0.049$)를 보였다. 우발적 수술군의 모든 환자에서 추가적인 절제술을 시행하여 30명 (79%)에서 잔류종양이 발견되었고, 36명 (95%)에서 안전역을 얻었다. 우발적 수술과 계획적 수술에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(60% vs 63%)와 항암 약물치료 (62% vs 47%)를 시행하였다. 활막육종 확진 이전에 2회이상 반복적인 절제술을 시행한 8명의 환자는 우발적 수술군내에서도 높은 국소 재발률 (50% vs 10%, $p=0.025$)을 보였다. 계획적 수술군과 우발적 수술군 간의 종양학적 결과 (5년 생존율; 79% vs 65%, 무전이 생존율; 73% vs 65%, 국소재발 생존율; 79% vs 77%)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

결론 : 활막육종에 대한 우발적 절제술은 작고, 표재성이며 상지에 위치한 병변에서 자주 시행된다. MRI검사에서는 상지는 신경원성 종양, 하지는 낭종이나, 혈관종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. 우발적 수술군과 계획적 수술군간의 종양학적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.

acknowledgment :

연부조직 육종, 활막 육종, 절제술